부처라는 이름과 형상에 절하지 말라

☞ 19면에서 계속

기 위해서 자기 영혼과 더불어 정자 · 난자를 빌어서 삼합을 한데 합쳐서 잉태가 되게 한 거니까 '네가 형성시켜서 지금도 이끌고 가잖아.' 이거예요. 자기가 형성시켜 놓은 거, 비유해서 얘기하는데 집을 사서 사는데 집이 망가진다고 한다면 집을 산 주인이 집을 고칩니까, 딴 데서 고칩니까? 주인이 고치지요. 돈을 내서라도 그치고 어떻게 해서라도 하여튼 고칠 거예요. 주인이! 그러니까 보세요. '내 몸에서 고장이 났다.' 한다면 바로 집주인이 고칠 거 아닙니까. 응당히 그렇게 해야죠.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자살하고 싶다 이런 문제가 벌어질 때에 '주인공은 내 자식과 둘이 아닌데 그렇게 안되게끔 할 수 있지 않아.' 하고 거기다 관할 때 거기까지 불이 들어오게 돼 있거든. 자식이다 부모다 하고 가설이 돼 있는 거거든. 그거를 일일이 스스로 알려면 나는 절에 간다 이런 게 아니에요. 나는 내 가정과 내 남편과 내 자식을 앞으로 돌에다 세워나도 살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여기 오는 거지 무슨 종교를 믿어서 기도하려고 오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생명 해치지 말도록

마음을 언제나, 절을 할 때는 내 마음을 항상 아만 · 아상을 다 내려놓고 자기한테 자기가 절하는 거예요. 제 3자한테 절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사상을 제거해야 만이 일등 가는 진짜 사람이라는 말을 하지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을 하지요. 내 고기 덩어리를 믿고 절하지 말라고 하죠. 나를 방편으로 세우고 당신과 나와 둘이 아닐 때 순간, 둘이 아닐 때에 당신한테 당신이 절을 하라고 하는 거죠. 내가 고개를 숙일 줄 알아야 마음도 숙일 줄 알고 지혜로워지고 높고 낮은 것을 다 합해서 둥글릴 수가 있다고 이렇게 말해요. 말이 길어졌지요.

▲질문자3: 어리석은 질문인지 모르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스님께서는 항상 관하는 것과 비는 것은 다르다고 했는데 저는 항상 관할 때마다 '주인공 너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잖아.' 이러면 비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혼잡스럽습니다.

▲스님: 그렇게, 말로만 그러지 마시고 마음이 진짜, 저 나무들이 자기 뿌리를 의지하고 살듯이 친근한 맛이 있죠. 비가 오거나 한다면 뿌리가 비에 패이지나 않나. 또는 친근한 마음으로 싹이 뿌리를 의지하고 방황하고 못 믿는 게 아니라 죽든 살든 뿌리를 믿는다. 죽으나 사나, 안되든 되든 뿌리만이 길을 인도하고 지켜주고 해결사가 돼 주고, 이끌어 주는 길잡이가 돼 주고, 또 아프면 의사가 돼 주고 이러는 거지요. 그러니까 진짜로 믿어야 돼요. 그냥 입으로만 '주인공 너만이 할 수 있어.' 이렇게 말로만 해서는 그게 통신이 되질 않아요. 벌써 관하면 진짜로 의지하고 굶는다 하더라도 편안하게 '굶기는 것도 너고 먹이는 것도 너다.' 하고 진짜로 믿는다면 다 먹이게끔 돼 있어요. 진짜로 믿는다면 바로 즉시 통신이 돼요. 인간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대뇌로 통신이 돼서 사대로 통신이 되면 바로 정수에 입력이 돼 버려요. 입력이 되면 입력 된 대로 현실로 나오게 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과거의 건 없어지고요. 새로이 입력된 것이 현실로 나오게 돼요. 또 입력을 하면 앞서의 게 없어지면서 새 입력이 들어가서 현실로 나오고 연구를 하는 데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미묘한 법이에요.

▲질문자3: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공부에 임하겠습니다.

▲질문자4: 시카고에 있다가 플로리다로 이사갔는데요. 저희 남편이 시카고에서 의과대학교 교수를 몇 년 정도 했어요. 전공이 노인 내과이거든요. 그래서 플로리다에 가서 개업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거기 가서 개업을 했는데 도와주다 보니까는 노인환자들이 많으시니까 돌아가시는 분도 많으세요. 근데 이 불법을 공부하고 나서부터 천도재라는 것도 배웠고 예수재도 다 배웠잖아요. 근데 그 환자들도 우리하고 인연이 맞아서 남편의 손을 거쳐서 돌아가시니 그분들도 다 부모와 조상이 되는데 천도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조금 그렇더라구요.

▲스님: 환경에 따라서요. 지금 어떤 분들은 음식을 많이 차려놓고 옛 방식대로 하는데 참 좋은 것 같죠. 근데 그 의미가 아주 깊어요. 마음공부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한생각에 할 수가 있어요. 또 두 번 째는 차려 놓지 않고 할 수가 있어요. 세 번 째는 상대방에서 아무 것도 아니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그 부질없는 생각을 하게 되면 언짢거든요. 좋지 않죠. 섭섭하고. 의사로서 그렇게 하는 거는 한생각으로 하세요. 그것이 한생각으로 그냥 '주인공 너만이 좋은 데로, 요 다음 세상에는 고생 안하고 살게끔 할 수 있잖아.' 한다면 그대로 재깍 법이 되요. 그렇게 하세요.



그림 · 최주현

아상 등 四相 버려야 참된 사람
고개숙일 줄 알면 지혜도 생겨

▲질문자4: 그리고 또 한가지는,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보니까 환자들이 오는데 의사들이 못 고치는 환자들이 있거든요. 어떤 경우를 보느냐하면 어떤 환자는 거의 100% 정상인처럼 보여요. 운전도 하고 돈 계산도 하고 다 멀쩡한데 눈에서 벌레가 나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벌레는 아니거든요. 그래 그 사람을 정신병 환자로 보기에는 보통 생활할 적에 아무 이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을 악몽에 시달려 가지고 밤에 잠을 자는데 항시 누가 쫓아다닌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동네에 새로 의사가 왔다하면은 다 찾아다니는데 고치질 못하거든요.

▲스님: 그거는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의식 속에서 그 사람을 괴롭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일러주기를 의식 속에서 그렇게 하는 거니깐 그 의식 속에서 그러는 거를 다 주인공에다 맡기라고만 일러주고 의사도 즉 말하자면 '너만이 그 사람을 낫게 할 수 있어.' 그렇게 한다면은 결부가 되는 게 뭐냐면 주인공은 넣어도 두드리지지 않고 꺼내도 줄지 않는 거예요. 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허공을 다 떴으려고 해도 떴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결부가 되면 결부된 그 자체가 바로 거기에서 또 결부가 되죠. 그렇게 되면 낫는 거예요. 둘이 아니기 때문에.

죽든 살든 뿌리 믿자

▲질문자4: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때는 저희 남편이 귀동냥을 해 가지고 관하는 거며 선원에 대해서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봐서 필요하니깐 관하는 법을 저보고 가르쳐 주라고 그래요. 환자한테 물어봐서 제가 가서 설명은 해주거든요. 거기는 한국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의사들만 한 서너 명 있을 정도거든요. 그래 관하는 법을 1시간 정도 설명을 해주면 다 이해는 하고 가는데 그걸로 제가 그쳐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스님: 오는 대로 그렇게 얘기해주되 그것이 이해가 되게끔 얘기를 해 줘야죠. 즉 말하자면 나무로 비유를 하세요. 나무는 뿌리를 의지하고 살지 않느냐. 당신 주인공이 바로 뿌리다. 그러니깐 뿌리를 의지하고 거기에다가만이 하면은 그 뿌리가 에너지를 흡수해서 싹으로 올려보내면 그 싹이 푸르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게끔 일러 주세요.

▲질문자4: 보통 이해들을 하는 거 같아요. 처음에 제가 설명을 해주면 이해는 다 하는데 이해를 행으로 옮기는 게 저부터도 힘들어서요.

▲스님: 이거보세요. 그 사람들만 그렇게 행하라 그러고 내버져 두는 게 아니지요. 그렇게 관하라고 한 사람도 그걸, 삼분지 이는 거기에 보충해 줘야 되요. 허허허.

▲질문자4: 감사합니다.

▲스님: 그래야 그 사람이 경험을 자꾸자꾸 해보면 '아 이러니까 낫더라.' 하면서 다른 것도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질문자4: 어떤 때는 제가 이 생각이 드는데요, 내가 스님도 아닌데 제대로 가르칠 수 있나 하는 마음도 들어요.

▲스님: 아니 그건 스님이 아니니까 못하는 게 아니에요. 스님이라는 것은 방편이에요. 스님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이렇게 오지들을 않으니까 방편으로 삭발하고 승복을 입는 거죠. 승복은 검지도 않고 희지도 않으니 중도다. 중도를 중심으로서 펼쳐나갈 수 있는 거를 말해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모든 게 남을 이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의사들도 이거를 먼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영계성에서 온 건지, 또는 유전성에서 온 건지, 세균성에서 온 건지, 업보성에서 온 건지, 인과성에서 온 건지를 모르고서야 어떻게 찝어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계성에서 오면 의식에서 나와서 미친 짓 하는 거를 다, 그러니깐 타의에서 영계성이 들렀어도 본인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는 방편을 써야 되는 거죠. 그거는 타의에서 온 게 아니다. 의식 속에서 나온 거니깐 거기다 되 놔라, 주인공에다 되 맡겨놔라 하고 일러줘야 하는 거죠. 그래야 그게 나아요.

▲질문자5: 저는 지금 국제정치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스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스님의 가르침을 접하고 나서 가장 감명 깊었던 거는 활용편이었습니다. 활용편을 읽어보고 불교가 염세적이 아니구나, 바로 생활 속에서 진취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것이라는 데서 상당히 인상 깊어서 제가 국제정치학 쪽에 지금 논문을 쓰면서 스님의 가르침을 응용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국제정치학 쪽에서는 모든 걸 물질적인 환경의 중요성을 주고 있고, 또한 그것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증거와 합당한 어떤 증거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스님께서 가르치시는 마음공부는 정신세계에 대한 중요성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관점을 두고 보고 있는 거는 과연 인간들이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를 어떠한 관점에서 보고 가느냐. 그렇게 보고 하나의 잣대를 뒀기 때문에 전쟁이나 불난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지금까지 계속돼 오지 않았느냐는 시각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증거를 내세우려고 하니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남을 이롭게

▲스님: 이거 봐요. 어떠한 용도에 따라서 전력을 꺼내 쓰죠? 끌어쓰지요. 근데 전력을 끌어쓰는데 오는 것도 보이지 않고 가는 것도 보이질 않아요. 다시 말해서 전력이 흐르는 것이 보이지 않죠. 근데 불은 켜지고 꺼지거든요. 그런데 전력이 오는 것도 순간 오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걸 증거로 내 놓으려니 내 놓을 수가 있나. 그리고 전도되는 문제, 내 의견을 전도되게 하고 또 에너지를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기는 거는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에 있을 때 미국에서, 가령 얘기하는 겁니다. 병원에 갔는데도 하혈이 멈추지 않는다고 했을 때에 난 아무 소리 못해요. 알았다고 그럴 수밖엔. 그런데 알았다고 하는 동시에 만약에 에너지가 전도가 된다면 내가 둘 아니게 그냥 전도가 된다면 하혈이 멈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전력이 오고 가는 게 없이 오고 가는 거나 똑같은 얘기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러니깐 비밀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정신계란 얘기고요. 그러니까 우주 허공의 얘기예요.

여러분이 잘 생각해서 법회 할 때마다 이리로 와요. 법문 비디오가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한 번 보면 딴 거 보고 싶지요. 그게 아니에요. 한 번 본 거라 해도 다음에 보면 또 달라져요. 또 그 다음에 보면 또 달라지구요. 자기차원이 높아지는 대로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깐 빠지지 말고 항상 듣고 배우고 그렇게 해서 벗어나기 바래요.

※위 법문은 1998년 6월 5일 워싱턴지원 청년회 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인터넷 방송(www.hbtv.org)나 한마음방송국)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기분좋은 여행, 펄스투어

예약 및 문의 : 02-3446-0410

불교유적 성지순례

정통 미얀마, 태국 불교성지순례 8일 : 210만원



일 정 : 인천-방콕-양곤(1)-파간(1)-만달레이-민군-만달레이(1)-양곤(1)-방콕(1)-아유타야-방콕(1)-인천
출 발 일 : [1차] 10월 29일, [2차] 11월 4일, [3차] 11월 18일, [4차] 12월 2일
포함사항 : 특급호텔 및 전일정 식사, 고급전용버스, 전일정 한국인 가이드, 입장료, 인천국제공항 출국세(25,000원) 현지공항세, 여행자보험
참고사항 : 미얀마 비자발급비(35,000원), 음료수, 기사 및 가이드 팁 등 개인 비용 별도

신비의 인도네시아(보로부두르) 불교성지순례 8일 : 160만원



일 정 : 인천-자카르타(1)-족자카르타(3박,보로부두르,프람바난)-발리(2)-인천
출 발 일 : [1차] 10월 29일, [2차] 11월 4일, [3차] 11월 18일, [4차] 12월 2일
포함사항 : 디럭스호텔 및 전일정 식사, 고급전용버스, 전일정 한국어 가이드, 입장료, 인천국제공항 출국세(25,000원) 현지공항세, 여행자보험
참고사항 : 음료수, 기사 및 가이드 팁 등 개인 비용 별도

중국여행

북경, 용경협(백화동) 4일 399,000원 (매일출발)
일정 북경(3박 천안문,자금성,만리장성,이화원,명13릉,천단공원,용경협)
특전 특급호텔(4성급) 이용,용경협,백화동,만리장성 케이블카,북경오리구이 서커스관람,테가촌석식(민속쇼관람),현지공항세,기사&가이드팁

서안, 아방궁 4일 399,000원 (금요일출발)
일정 서안(3박 아방궁,진시황릉,병마용갱,화청지,비림,성벽관광,박물관)
특전 일급호텔(전국호텔),식사,차량,입장료,가이드,현지공항세

상해, 항주, 소주 4일 399,000원 (매일출발)
일정 상해(홍구공원,임시정부청사,예원,외탄)-항주(1박 서호,영은사,육화탑) 소주(1박 발마사지,졸정원,한산사,호구사탑,실크공장)-상해(1박)
특전 일급호텔(4성급) 이용,식사,차량,입장료,가이드,현지공항세,발마사지

일본여행

벳부온천 3일 549,000원 (금요일출발)
일정 벳부(2박 온천욕,아소산,원숭이쇼,지옥온천순례,유노하나전망대)
특전 일급온천호텔,식사,차량,입장료,가이드

운젠, 하우스텐보스 3일 549,000원 (목,토요일출발)
일정 운젠(1박 운젠지옥,부사마을,화산공원)-사세보(1박 하우스텐보스)
특전 일급온천호텔,식사,차량,입장료,가이드,하우스텐보스 1일 자유이용권

www.pearlstour.com

성지순례 / 할인항공권 / 맞춤여행 / 패키지 / 신혼여행 / 배낭여행 / 골프투어 / 국내여행

주소 : 서울 강남구 논현동 6-3 영동빌딩 4층 / 대표전화 : 02-3446-0410 / 팩스 : 02-3446-0414

펄스투어